

청주이씨(淸州李氏) 선조(先祖) 관직(官職) 해설

청주이씨(淸州李氏)는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 휘(諱) 능희(能希)께서 고려(高麗) 태조(太祖)를 도와 개국(開國)에 참여하여 성(姓)을 하사받은 이후 현상양좌(賢相良佐)가 배출되어 특히 조선(朝鮮) 초기에 매우 빛나는 문벌(門閥)이 되었다. 시조께서는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태사(太師) 관직을 역임하시고, 그 이후 선조(先祖)들께서 평장사(平章事)·판사(判事)·지사(知事)·좌정승(左政丞)·전서(典書)·영사(領司)·평부사(領司平府事)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셨는데, 그 관직의 의미와 역할을 오늘날 알 수 있도록 풀이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게 되었다.

이 문제는 지난봄에 청주이씨대동보편찬위원회(淸州李氏大同譜編纂委員會)(2011년 대동보 발행) 위원장(委員長) 남영(南榮, 31세 목천파) 씨께서 특히 거론하고, 선조의 관직을 해설하여 대동보에 실었어야 할 것을 그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하고, 이제라도 이를 해설하자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족보를 정리하는 이번 기회를 맞아서 그 해설을 그 족보에 함께 실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남영 씨의 논의는 우리 선조들에 대한 실상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적극 찬동하고 틈을 내어 작업을 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리고는 이 사정 저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름이 끝나가는 무렵인 9월 초에야 1차 작업을 마치게 되었다.

선조 관직의 전거(典據)는 청주이씨대동보(淸州李氏大同譜)(2011년 발행)에 표시된 관직에 의거하고, 이전 족보(族譜) 및 청주이씨문헌록(淸州李氏文獻錄) 등을 참고하여 보충하였다. 그리고 그 범위는 시조부터 13세(世)까지로 하여, 그 관직 명칭을 간략히 해설하였다.

선조의 호칭(呼稱)을 다루는 일이라,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작업하여 3차(次)에 걸쳐 원고를 작성하였으나 소홀한 점이 많아 두희(斗熙, 32세 흥성파) 씨께 2차에 걸쳐 교열(校閱)을 받아 고쳤다. 그래도 어찌 완벽하다고 하겠는가! 종친(宗親) 제위(諸位)의 지도에 의해 더욱 수정(修整) 보완(補完)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9월 22일 충구(忠九, 30세 목천파) 삼가 씀

○始祖 : 諱 能希 諡號 安度公(휘 능희 시호 안도공) 高麗 開國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太師(고려개국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태사)

‘諱’는 죽은 사람의 생전(生前)의 이름이다.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 이름을 명(名)이라 하고, 죽은 뒤에는 ‘諱’라고 한다.

‘開國功臣’은 나라를 새로 세울 때, 공로가 있는 신하이다.

‘諡號’는 당사자가 죽은 뒤에 국왕으로부터 받은 이름으로, 왕·왕비를 비롯해 관리나 학덕이 높은 선비들에게 그의 행적에 따라 이름을 지어서 수여한 호칭이다. ‘諡’한 글자로 표시된 경우가 많은데, ‘시(諡)’와 통용한다. 조선(朝鮮)에서는 정2품 이상

의 실직(實職)을 지낸 이에게 수여하였다.

‘壁上三韓三重大匡’은 고려시대 정1품 문관의 품계이다. ‘壁上’은 ‘벽에’라는 뜻으로, 벽에 화상 등을 그려 놓은 경우를 말한다. ‘上’은 명사(名詞) 뒤에 부쳐서 표면(表面)·처소(處所)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三韓’은 상고시대에 한반도(韓半島) 남부에 있던 3부족사회(三部族社會)인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을 말한다. ‘三重’은 ‘세 겹’이라는 뜻으로, 방석을 세 겹으로 놓는 데에서 유래하였는바, 중국 고대에 천자(天子)는 5중(五重), 제후(諸侯)는 3중이었다. ‘大匡’은 ‘큰 일로 임금을 바르게 하다 [以大事匡君]’라는 뜻이다.

‘太師’는 고려시대 왕자(王子)·부마(駙馬, 임금 사위)·비부(妃父, 왕비 아버지) 등의 종실(宗室)과 공신 및 고위 관원에게 내렸던 벼슬이다. 태사(太師)는 태부(太傅)·태보(太保)와 함께 삼사(三師)라 불렸는데, 이 중 가장 높은 벼슬이다. ‘太師·太傅·太保’는 중국 주(周)나라 때부터 있었다.

○二世：諱 謙宜(휘 겸의) 金紫光祿大夫 刑官御事(금자광록대부 형관어사)

‘金紫光祿大夫’는 고려시대 종2품 문관의 품계이다. ‘金紫光祿大夫’라는 명칭은 중국 진(晉)나라 때부터 있었는데, ‘金紫’는 ‘금인자수(金印紫綬, 황금 인장과 자색 인끈)’라는 뜻으로, 광록대부(光祿大夫)라야 이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또한 ‘金紫光祿大夫’라고 일컫게 되었다. ‘光祿’은 중국 한(漢)나라 때부터 관직 명칭으로 사용하였는데, 광(光)은 ‘밝다[明]’라는 뜻이고, 록(祿)은 ‘작위[爵]’라는 뜻이다. ‘大夫’는 중국 주(周)나라 때부터 관직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刑官御事’는 고려 전기 형관(刑官)에 속한 관직이다. ‘刑官’은 형벌을 관장하였던 중앙관청으로, 선관(選官)·병관(兵官)·민관(民官)·형관(刑官)·예관(禮官)·공관(工官)의 육관(六官)의 하나이고, 뒤에 형부(刑部)로 고쳤다. ‘御事’는 ‘일을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육관의 장관(長官, 해당 관청의 최고 책임자)이다. ‘刑官’은 중국 주(周)나라 때부터 있었다.

○三世：諱 元審(휘 원심) 開府儀同三司 太子太保(개부의동삼사 태자태보)

‘開府儀同三司’는 고려시대의 종1품 문관의 품계이다.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부터 ‘開府儀同三司’라는 일종의 고급 관위(官位)가 있었는데, ‘開府’는 ‘관청을 개설하여 속관(屬官)을 두다’라는 뜻이고, ‘儀同三司’는 ‘의장(儀仗)이 삼사(三司, 삼공(三公))와 같다’라는 뜻이다.

‘太子太保’는 동궁(東宮)에 속하여 왕세자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직이다.

○四世：諱 仲降(휘 중강) 政堂文學 尙書右僕射 (정당문학 상서우복야)

‘政堂文學’은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2품 관직이다. ‘中書門下省’은 고려시대 최고의 중앙정치기구로, 982년(고려, 성종 1)에 내서문하성(內史門下省)을 설치했다가 1061년(문종 15)에 중서문하성이라 개칭하고, 조선 건국 직후 폐지될 때

까지 고려의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기능하였는데, 문하시중(門下侍中)이 장관으로서 수상(首相)의 위치에 있었고, 성재(省宰, 중서문하성에 속한 2품 이상의 관원)는 종1품인 중서령(中書令)·문하시중과 정2품인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 그리고 종2품인 참지정사(參知政事)·정당문학(政堂文學)·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 구성되었으나, 중서령은 치사(致仕)와 추증(追贈)으로만 수여하고 실직(實職)이 아니었으므로 장관은 문하시중이 되었고, 특히 문하시중·평장사·참지정사·정당문학·지문하성사 등 다섯 관직을 5재(宰)라고 하여 재신(宰臣) 또는 재상(宰相)이라 불렀다.

‘尙書右僕射’는 고려시대 상서성(尙書省)의 정2품 관직이다. ‘尙書省’은 3성(三省)의 하나로 백관을 총령(總領)하던 중앙관청이고, 상서도성(尙書都省)과 그 아래의 상서이부(尙書吏部)·상서병부(尙書兵部)·상서호부(尙書戶部)·상서형부(尙書刑部)·상서예부(尙書禮部)·상서공부(尙書工部) 등 상서육부(尙書六部)와 상서고공(尙書考功)·상서도관(尙書都官) 등의 속사(屬司)로 구성되었으며, 중서문하성과 함께 양성(兩省) 체제를 이루면서 행정실무를 담당했고, 상서도성의 최고관직인 상서령(尙書令)은 실직(實職)이 아니라 종친(宗親)에게 주는 명예직이었고, 그 아래 복야(僕射, 좌복야(左僕射)·우복야)와 지성사(知省事) 역시 한직(閑職)으로서 품계는 2품이었으나 재추(宰樞, 재상)의 반열(班列)에 들지 못했다. ‘尙書’는 중국 전국(戰國) 시대에 처음 두었는데, 문서 발송을 담당한[主發書] 관직이었다. ‘尙’은 ‘주관하다[主]’, ‘담당하다[執掌]’라는 뜻이다. 고려 때 ‘尙書’는 이후 전서(典書), 판서(判書)로 바뀌게 되는데, ‘典’은 ‘말다’는 뜻이고, ‘判’은 ‘판결하다’는 뜻이다. ‘僕射’는 중국 진(秦)나라 때부터 두었는데, ‘활쏘기에 복역하다[僕役於射]’라는 뜻이고, ‘僕’은 복역(僕役) 이외에 ‘주관하다[主]’로도 풀이한다. ‘射’는 활쏘기라는 뜻이지만, 관명(官名)으로 쓰일 때는 음(音)을 변하여 ‘야(夜)’로 읽는다. 복야는 후세에 점차 직권(職權)이 소중해져서 한(漢)나라 때에 좌복야(左僕射)·우복야(右僕射)로 늘려 두었다. ‘尙書’와 ‘右僕射’를 합하여 ‘尙書右僕射’라는 하나의 관직은 삼국(三國) 위(魏)나라 때 두었고, 이 명칭을 고려에서 사용한 것이다.

○五世 : 諱 仁至 諡號 文正公(휘 인지 시호 문정공)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傅(개부의 동삼사 검교태부)

‘檢校太傅’는 고려 시대 검교직(檢校職) 태부(太傅) 관직이다. ‘太傅’는 종실(宗室)과 공신(功臣) 및 고위 관원에게 내렸던 정1품 관직이다. ‘檢校’는 훈관(勳官, 작호(爵號)만 있고 직무상의 일이 없는 벼슬)으로, 고위관직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승진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실직의 제수에 한계가 드러나자 관리들의 승진의욕을 제고하고자 실직이 아닌 훈직(勳職)을 주어 승진의 기회를 부여한 관직이다.

○六世 : 諱 公升 諡號 文貞公(휘 공승 시호 문정공) 中書侍郎平章事(중서시랑평장사)
‘中書侍郎平章事’는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의 정2품 관직이다. ‘中書’는 ‘궁중의 글

[內中之書]이라는 뜻으로, '궁중의 글을 총괄 관장하는(總掌禁中書記)' 관직이고, 중국 한(漢)나라 때에 생겼다. '侍郎'은 '임금을 모시는 낭관(郎官)'이라는 뜻으로, '숙위(宿衛, 숙직하며 임금을 호위함)하며 따름을 관장하는[掌宿衛侍從]' 관직이고 중국 진한(秦漢) 시대에 생긴 낭중령(郎中令)의 소속 관원이었다. '平章事'는 '일을 고르게 밝혀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2~3일에 한 번 중서문하(中書門下)에 나아와 일을 보는 관직으로, 당(唐)나라 태종(太宗) 때에 생겼다. '中書', '侍郎', '平章事'를 합한 '中書侍郎平章事'는 당(唐)나라 때부터 있었고, 이 명칭을 고려에서 사용한 것이다.

○七世 : 諱 椿老 諡號 貞肅公(휘 춘로 시호 정숙공) 參知政事(참지정사)

'參知政事'는 '정무에 참여하여 주관하다'라는 뜻으로,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의 종2품 관직이다.

七世 : 諱 桂長(휘 계장) 太傅 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同修國史(태부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동수국사)

'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는 평장사(平章事)의 하나로,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속했던 정2품 관직이다. 문종(文宗) 때에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가 있었으며, 정원은 각 1인이었다. 그러나 실제 문하평장사·중서평장사는 두지 않았고, 대신 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중서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가 설치되어 있었다. '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는 역시 당(唐)나라 때부터 있었고, 이 명칭을 고려에서 사용한 것이다. '門下省'은 문하(門下)로 약칭하기도 하는데, '門下'는 '궁문(宮門) 밑'이라는 뜻으로, 중국 진(晉)나라 때 '궁문 안의 여러 일을 관장하는[掌管門下衆事]' 관청이므로, '門下省'이라고 일컫고, 시중(侍中)이 장관(長官)이고, 원(元)나라 때 폐지되었다.

'同修國史'는 고려시대 사관(史館)의 관직으로, 2품 이상이었으며 대개 중서문하성의 재상(宰相)이 겸직하였고, 수상(首相)이 겸직하는 감수국사(監修國史)와 역시 2품 이상이 겸직하는 수국사(修國史)의 다음에 위치하였다. '同修國史'는 '국사(國史)를 함께 편수(編修)하다'라는 뜻으로, '修國史'에 앞에 감(監)이 쓰이면 '修國史'보다 높은 관직이고, 동(同)이 쓰이면 '修國史'보다 낮은 관직이다.

○八世 : 諱 粧(휘 장) 朝請大夫 殿中監(조정대부 전중감) 贈金紫光祿大夫 知門下省事 上將軍 判禮曹事(증금자광록대부 지문하성사 상장군 판예조사)

'朝請大夫'는 고려 관직표에 보이지 않고 종5품 조청대부(朝請大夫)가 있는데 '請'을 '靖'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殿中監'은 고려 시대 전중성(殿中省)의 종3품 관직으로, 왕실과 친족의 족보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殿中省'의 '殿中監'은 중국 위(魏)나라 때 있었다. '殿中'은 '전각 안'이라는 뜻이다. '監'은 중국에서 고대(古代)부터 관명(官名)으로 쓰였는데,

감찰(監察)을 주관(主管)하는 관원에 많이 쓰였다.

‘贈’은 서거한 뒤, 즉 사후(死後)에 받은 관직이다.

‘知門下省事’는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2품 관직으로, 문하성지사(門下省知事)이다. ‘知事’ 속에 ‘門下省’ 관청이 들어간 관직 명칭이다. ‘知事’는 호칭이 오늘날 강원도지사(江原道知事) 등에 남아 있다. ‘知’는 ‘주관하다[主]·담당하다[掌]’는 뜻이다. ‘知門下省事’는 중국 당(唐)나라 때에 있었다.

‘上將軍’은 고려시대 무관 정3품의 최고지휘관으로, 중국 춘추(春秋) 시대부터 쓰였다.

‘判禮曹事’는 예조판사(禮曹判事)이며, 고려 시대 상서예부(尙書禮部)의 최고 관직으로 종1품이다. ‘判事’ 사이에 ‘禮曹’ 관청이 들어간 관직 명칭이다. ‘判事’는 호칭이 오늘날 재판소판사(裁判所判事)에 남아 있다. ‘判’은 ‘판단하다·판결하다’라는 뜻이다. ‘曹’는 중국 고대에 ‘분과(分科)하여 일을 처리하는 관서(官署)’이다.

八世 : 諱 滉(휘 황) 大司諫 領府事(대사간 영부사)

‘大司諫’은 조선 시대 사간원(司諫院)의 장관(長官)이다. ‘司諫院’은 간쟁(諫諍)과 논박(論駁)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司諫’은 ‘간쟁을 담당하다’라는 뜻으로, 대사간 아래의 관직으로도 사용되었다.

‘領府事’는 부(府) 관청의 으뜸 관직으로, 정1품이며 영사(領事)라고도 한다. ‘領’과 ‘府事’ 사이에 관청이 들어간 관직 명칭이다. 예건대 돈녕부영사(敦寧府領事)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를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라고 한다. ‘領事’는 호칭이 오늘날 외국 주재 외교관에 남아 있다. ‘領’은 ‘다스리다’는 뜻이다. ‘領事’는 여러 관청에 있는데 정1품이고, 그 아래로는 품계에 따라 호칭을 달리하여 중추부의 예를 들면 판사(判事, 종1품), 지사(知事, 정2품), 동지사(同知事, 종2품), 첨지사(僉知事, 정3품)로 부른다. 이 경우 ‘동지사’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호칭되는 것이다.

○九世 : 諱 昌祐(휘 창우) 版圖摠郎(판도총랑) 贈匡靖大夫 判密直司事 上將軍(증광정대부 판밀직사사 상장군)

‘版圖摠郎’은 고려 후기 판도사(版圖司)에 속한 정4품 관직이다. ‘版圖司’는 고려 후기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으로, 상서육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상서호부(尙書戶部)를 판도사(版圖司)로 고치고, 그 관원으로 판서(判書)를 두고 그 아래 총랑(摠郎)·정랑(正郎)·좌랑(佐郎)을 두었다. ‘版圖’의 ‘판(版)’은 호적, 도(圖)는 지도[版戶籍圖地圖]’라는 뜻이다.

‘匡靖大夫’는 고려 시대 문관의 정2품 품계이다. ‘匡靖’은 ‘임금을 바르게 인도하고 난리를 안정시키다[匡君靖難]’라는 뜻이다.

‘判密直司事’는 고려 시대 밀직사(密直使)의 으뜸 벼슬로, 밀직사판사(密直使判事)이다. ‘密直司’는 고려시대 몽고(蒙古)의 간섭 하에서 왕명의 출납, 궁중의 숙위(宿衛),

군기(軍機)의 정사를 맡아보던 관청으로, 991년(성종 10)에 설치된 중추원(中樞院)이 1095년(헌종 1) 추밀원(樞密院)으로 바뀌었다가, 원(元)나라의 간섭기인 1275년(충렬왕 1) 밀직사로 바뀌었다.

九世 : 諱 天明(휘 천명) 通政大夫(통정대부)

‘通政大夫’는 조선시대 정3품 당상관(堂上官) 품계이다. ‘通政’은 명(明)나라 때 관직 명칭으로 쓰였는데, 명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이 ‘정무는 물과 같으므로, 늘 통하게 해야 한다[政事如同水 欲其常通]’라고 한 데에서 그 명칭이 유래하였다.

당상관(堂上官)은 조의(朝議)를 행할 때 당상(堂上)에 있는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는 관원으로, 동반(東班, 문관 품계)은 정3품의 통정대부 이상, 서반(西班, 무관 품계)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 종친(宗親, 왕의 부계(父系) 친속)은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은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품계를 가진 관원이다. 품계 명칭은 동반, 서반, 종친, 의빈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불렸다.

九世 : 諱 天奇(휘 천기) 兵部尙書(병부상서).

‘兵部尙書’는 병부(兵部)의 상서(尙書) 관직으로, 품계는 정3품이다. ‘兵部’는 고려시대 상서성(尙書省) 아래의 6부(部)의 하나로, 무선(武選, 무신들의 인사(人事))·군무(軍務)·의위(儀衛)·우역(郵驛, 우체)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尙書’는 상서성(尙書省)의 정3품 관직으로, 995년(성종 14) 이부(吏部)·병부(兵部)·호부(戶部)·형부(刑部)·예부(禮部)·공부(工部)의 상서육부(尙書六部)의 형식상으로는 장관(長官)이지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재신(宰臣)이 각 부(部)의 판사(判事)를 겸임한 탓에 그 기능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상서육부가 독립성을 잃고 중서문하성에 예속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상서성의 좌우복야(左右僕射)와 함께 8좌(座)라 일컬어지면서 곧 재추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우위직으로 인식되었고, 뒤에 전서(典書)로 바뀌었다가 또 판서(判書)로 바뀌었다. ‘兵部尙書’라는 명칭은 중국 수(隋)나라 때부터 쓰였다.

이태조(李太祖) 4년에 판사(判事) 이천기에게 원종공신(原從功臣) 녹권(錄券)을 내렸는데, ‘判事’는 육부(六部)·어사대(御史臺) 등에 둔 관원이고, ‘原從功臣’은 큰 공훈이 있는 정공신(正功臣)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이고, ‘錄券’은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각 공신에게 발급한 공신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九世 : 諱 元瑞(휘 원서) 果政校尉(과정교위)

‘校尉’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5품·6품 무관의 칭호이다. ‘校尉’는 중국 진(秦)나라 때 있었는데, ‘校’는 ‘군영(軍營)’이라는 뜻이고, ‘尉’는 ‘군관(軍官)[戎官]’이라는 뜻이다.

○十世 : 諱 季城 諡號 正憲公(휘 계감 시호 정헌공) 重大匡 琅城君(중대광 낭성군)

‘重大匡’은 고려 시대 종1품의 문관 품계이다.

‘琅城君’은 군(君)이라는 작호(爵號)로, ‘琅城’은 청주(淸州)의 옛 이름이다. 이러한 작호는 종실(宗室), 외척(外戚), 공신(功臣)에게 주었는데, 공작(公爵), 후작(侯爵), 백작(伯爵)이 있었다.

十世 : 諱 次城(휘 차감) 개성이씨(開城李氏)로 분적(分籍)하였다.

十世 : 諱 季城(휘 계성) 判樞密院事(판추밀원사) 報恩伯(보은백)

‘判樞密院事’는 고려 시대 추밀원(樞密院)의 으뜸 관직으로, 추밀원판사(樞密院判事)이다. 추밀원은 왕명의 출납과 궁중의 숙위(宿衛)·군기(軍器)를 맡아보던 중추원(中樞院)의 후신으로, 뒤에 밀직사(密直司)로 바뀌었다. ‘判樞密院事’라는 명칭은 중국 오대(五代) 때부터 있었고, ‘樞密’은 ‘중추(中樞) 기밀(機密)’이라는 뜻이다.

報恩伯’은 백(伯)이라는 작호(爵號)이다.

十世 : 諱 模全(휘 모전) 奉常大夫(봉상대부)

‘奉常大夫’는 고려 시대 정4품의 문관 품계이다. ‘奉常大夫’는 중국 당(唐)나라 때에 있었다. ‘奉常’은 ‘기[常]를 받들다’라는 뜻으로, 중국 진(秦)나라 때 관직이고, ‘태상(太常)은 왕(王)의 기인데 해와 달을 그렸다. 왕에게 큰 행사가 있으면 세우고 가는데 예관(禮官)이 주장하여 받들어 쥐므로 봉상(奉常)이라고 한다.[太常 王者旌旗也 晝日月焉 王有大事 則建以行 禮官主奉持之 故曰奉常也]’라고 설명되었다.

조선시대의 문관 품계는 4품 이상을 대부(大夫)라고 하고, 5품 이하를 낭(郎)이라 하였다.

十世 : 諱 茂(휘 무) 通政大夫(통정대부) 信校副尉(신교부위)

‘副尉’는 조선 시대에 7품·8품·9품 무관의 칭호이다. 조선시대의 무관 품계는 4품 이상을 장군(將軍)이라고 하고, 5품 이하를 교위(校尉)라고 하고, 7품 이하를 부위(副尉, 버금 교위(校尉))라고 하고, 그리고 종2품 이상은 별도 칭호가 없이 문관 품계 칭호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十世 : 諱 基(휘 기) 參奉(참봉)

‘參奉’은 조선시대 각 관청의 종9품 관직이다. ‘參奉’은 ‘참배(參拜)하다’라는 뜻이다.

十世 : 諱 壇(휘 담)

十世 : 諱 潤孫(휘 윤손) 進勇校尉(진용교위)

‘進勇校尉’는 조선 시대 정6품 무관 품계이다. ‘進勇’은 ‘나아가 용감히 일하다’라는

뜻이다.

○十一世 : 諱 挺 諡號 文簡公(휘 정 시호 문간공) 光祿大夫 刑部尙書(광록대부 형부 상서) 贈門下右政丞 西原伯(증문하우정승서원백)

‘光祿大夫’는 고려시대 정2품 문관 품계이다.

‘刑部尙書’는 고려 시대 형부(刑部)의 관직이다.

‘門下右政丞’은 도첨의부(都僉議府)에 속한 종1품 관직 첨의우정승(僉議右政丞)을 충혜왕(忠惠王) 때 첨의우시중(僉議右侍中)으로 고치고, 뒤에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으로 고치고, 조선 태조(太祖) 3년(1394)에 ‘門下右政丞’으로 고친 것이다. ‘政丞’은 ‘정무를 돕다’라는 뜻으로, ‘丞’은 중국 고대(古代)부터 관직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西原伯’은 백(伯)이라는 작호(爵號)로, ‘西原’은 청주(淸州)의 옛 이름이다.

十一世 : 諱 邦直(휘 방직) 進賢館大提學(진현관대제학) 琅城君(낭성군)

‘進賢館大提學’은 고려시대 진현관의 장관(長官)인 대제학 관직이다. ‘進賢館’은 고려시대 학문기관인 관전(館殿)의 하나이다. 여러 관전에는 송문관(崇文館)·홍문관(弘文館)·문덕전(文德殿)·수문전(修文殿)·연영전(延英殿)·집현전(集賢殿)·우문관(右文館)·진현관 등 여러 관청이 있었는데, 문신(文臣) 중 재학(才學)이 있는 자를 뽑아 겸관(兼官)으로 왕을 시종(侍從)하게 하였다. 진현관이 처음 기록에 나오는 것은 충렬왕(忠烈王) 때이지만 확실한 설치 연대는 알 수 없고, 1308년 충선왕(忠宣王)이 정권을 잡고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에 병합하였다가 곧 다시 설치하여 종2품의 대제학(大提學), 정3품의 제학(提學), 정4품의 직제학(直提學)을 두었고, 1356년(공민왕 5) 집현전(集賢殿)으로 고쳐 대학사(大學士)·직학사(直學士)를 두었다. ‘進賢’은 ‘현인(賢人)을 진취시키다’라는 뜻이다. ‘大提學’은 제학(提學)에 대(大)를 더해 제학보다 윗자리를 표시한 것이다. ‘提學’은 ‘학교 행정을 다스려 감독하다[提督學政]’의 생략으로, 중국 송(宋)나라의 제거학사사(提舉學事司) 관청을 둔 것에서 유래하였다.

‘琅城君’은 10세(世) 휘(諱) 계감(季城)과 같은 군(君)이라는 작호(爵號)이다.

十一世 : 諱 松固(휘 송고) 版圖判書(판도판서)

‘版圖判書’는 판도사(版圖司)의 장관(長官)인 판서(判書)로, 고려 중엽의 관직이다. 31대 공민왕(恭愍王) 11년(1362) 호부상서(戶部尙書)를 고친 이름이며, 뒤에 호조전서(戶曹典書)로 바뀌었다가 조선 3대(代) 태종(太宗) 때에 호조판서(戶曹判書)로 바뀌었다.

十一世 : 諱 芳固(휘 방고) 行中郎將 版圖判書(행중랑장 판도판서)

‘中郎將’은 고려시대 정5품의 무관 관직이다. ‘行’은 ‘中郎將’이라는 정5품의 직책보다 품계가 높은 종4품 이상 관원이 재임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별 둘 소장(少將)이 사단장을 하는데 계급이 높은 별 셋 중장(中將)이 사단장을 하는

경우 ‘行’이 된다. ‘中郎將’은 중국 진(秦)나라 때에 설치되었다.

十一世 : 諱 賢卿(휘 현경) 通政大夫(통정대부) 守司憲府大司憲(수사헌부대사헌)

‘司憲府大司憲’은 종2품의 사헌부의 장관(長官) 대사헌 관직이다. ‘司憲府’는 감찰 담당 기관이다. ‘司憲’은 ‘법을 맡다’라는 뜻이다. ‘守’는 ‘大司憲’이라는 종2품의 직책보다 품계가 낮은 정3품 이하 관원이 재임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行’과 반대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별 둘 소장(少將)이 사단장을 하는데 계급이 낮은 별 하나 준장(准將)이 사단장을 하는 경우 ‘守’가 된다.

앞의 행(行)과 여기의 수(守)를 행수법(行守法)이라 하는데, ‘行守法’은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명하거나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이를 ‘계고직비 행(階高職卑 行, 품계가 높고 직책이 낮으면 行)’, ‘계비직고 수(階卑職高 守, 품계가 낮고 직책이 높으면 守)’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모든 직함은 계(階, 품계)를 먼저 쓰고, 사(司, 관청)를 다음에 쓰고 직(職, 직책)을 다음에 쓴다. 품계가 높고 직책이 낮으면 ‘行’을 일컬으며, 품계가 낮고 직책이 높으면 ‘守’를 일컫는다. ‘行’자와 ‘守’자는 관청 위에 붙인다(凡職銜先階次司次職, 階高職卑則稱行, 階卑職高則稱守, 行守字在司上.)”(大典會通 吏典 京官職)에 보인다. 직함 표시는 ‘階, 司, 職’의 3가지의 순서인데 ‘階’와 ‘職’이 균형을 이루면 ‘行·守’를 쓰지 않고, 불균형일 때 품계가 높으면 ‘階, (行)司, 職’, 직책이 높으면 ‘階, (守)司, 職’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모든 관직에는 그에 따르는 품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직에는 그 관직 자체의 품계보다 더 높은 품계의 관원, 또는 반대로 더 낮은 품계의 관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 중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직책에 임용하는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를 ‘行’, 반대로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직책에 임용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를 ‘守’라 한다. 예를 들면, 정2품의 자헌대부(資憲大夫)가 종2품의 낮은 직책인 대사헌(大司憲)에 임용되면 자헌대부‘행’사헌부대사헌(資憲大夫‘行’司憲府大司憲)이라 표현하고, 반대로 종2품의 가선대부(嘉善大夫)가 정2품 직책인 높은 호조판서에 임용되면 가선대부‘수’호조판서(嘉善大夫‘守’戶曹判書)라 표현하였다. 품계와 직책이 균형을 이루어 정2품의 자헌대부(資憲大夫)가 정2품 직책인 호조판서에 임용되면 자헌대부호조판서(資憲大夫戶曹判書)라 표현하여, ‘行·守’를 쓰지 않는다. ‘資憲大夫’는 ‘階’이고, ‘戶曹’는 ‘司’이고, ‘判書’는 ‘職’이다. 행수법은 중국에서 일찍부터 시행되어 “계급이 높고 관직이 낮으면 ‘行’을 일컫고, 계급이 낮고 관직이 높으면 ‘守’를 일컫는다(階高官卑稱行, 階卑官高稱守.)”(事物紀原 經籍藝文 守官)라고 하였는바, 중국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다. 그리고 “송나라 제도는 <계급이 관직보다> 1품이 높으면 ‘행(行)’을 일컫고, 1품이 낮으면 ‘수(守)’를 일컫고, 2등이 낮으면 ‘시(試)’를 일컫는다.(宋制則高一品爲行, 下一品爲守, 下二等爲試.)”라고 하여, ‘試’도 쓰였던 것이다.

행(行)은 행수법(行守法)의 행(行, 계고직비(階高職卑) 행)이 있고, 또 행증법(行贈法)의 행(行, 생전 관직 행)이 있다. 11세(世) 문간공(文簡公)의 관직은 ‘光祿大夫 刑

部尙書 贈門下右政丞 西原伯’인데, 앞부분에 ‘행(行)’이 생략된 것이다. 이리하여 ‘(行)光祿大夫 刑部尙書 贈門下右政丞 西原伯’이 완전한 표시인데, ‘(行)光祿大夫 刑部尙書’는 생전에 받은 관직이고, ‘贈門下右政丞 西原伯’은 사후(死後)에 받은 관직을 나타내는바, 이 때 행(行)은 계급(階級) 앞에 쓴다. 다른 용례를 더 들어 보면 “‘증’대 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영경연감춘추관사 ‘행’승정대부 의정부우찬성 겸판의금부 지경연사 권공 행장(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 ‘行’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兼判義禁府知經筵事 權公行狀)”(退溪先生文集 제49권 權機行狀)에는 권벌(權機, 1478년~1548)의 관직이 표시되었는데, ‘行’이 ‘崇政大夫’라는 계급 앞에 있어 증행법의 ‘행’임을 판별할 수 있다.

행(行)은 계고직비(階高職卑)의 행수법과 생전 관직을 표시한 증행법이 있는데, ‘行’이 계급 뒤에 오면 계고직비를 표시하고, 계급 앞에 오면 생전 관직을 표시하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 행(行)의 쓰인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행수(行守)의 ‘행’은 ‘계(행)사직(階(行)司職, 계급 (행)관청 직책)’의 순서에 의해 계급 뒤에 표시하고, 증행(贈行)의 ‘행’은 ‘(행)계사직((行)階司職, (행)계급 관청 직책)’의 순서에 의해 계급 앞에 표시한다. 즉 ‘階(行)’이면 행수의 ‘행’이고, ‘(行)階’면 증행의 ‘행’이다.

十一世 : 諱 碩根(휘 석근) 通政大夫(통정대부) 彰信校尉(창신교위) 中嶺仕職(중령사직)

‘彰信校尉’는 조선 시대 종5품 무관의 품계이다. ‘彰信’은 ‘신의를 드러내다’라는 뜻이다.

‘中嶺仕職’은 미상이다.

十一世 : 諱 碩芬(휘 석분) 通政大夫(통정대부)

十一世 : 諱 碩健(휘 석건) 進士(진사)

‘進士’는 조선시대 소과(小科)의 하나인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사람이다. 진사와 동등한 시험으로 생원(生員)이 있었다. 진사와 생원은 자격(資格)의 명칭으로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할 수 있으며, 대과(大科, 文科)에 응시할 수 있었다. 시험은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로 나뉘어져 있었다. 생원시는 오경의(五經義)와 사서의(四書疑)의 제목으로 유교경전(儒教經典)에 관한 지식을 시험하고, 그리고 진사시는 부(賦)와 시(詩)의 제목으로 문예창작의 재능을 각각 시험하였다. 그리하여 합격자에게 ‘생원’ 또는 ‘진사’라고 하는 일종의 학위(學位)를 수여하였다.

十一世 : 諱 碩俊(휘 석준)

十一世 : 諱 陽根(휘 양근) 參奉(참봉)

十一世 : 諱 泰根(휘 태근)

十一世 : 諱 昔根(휘 석근) 參奉(참봉)

○十二世 : 諱 由信(휘 유신) 文林郎 持平(문림랑 지평) 慶尙道按察使(경상도안찰사) 中直大夫(중직대부) 刑部郎中(형부낭중)

‘文林郎’은 고려시대 문관의 종9품 품계이다. ‘文林郎’이라는 명칭은 중국 수(隋)나라 때에 있었다. ‘文林’은 ‘문사의 숲[文士之林]’이라는 뜻으로, ‘많은 문인이 모인 곳을 말한다[謂眾多文人聚集之處]’라고 설명한다.

‘持平’은 고려 후기 사헌부(司憲府, 고려 말에 생긴 관청)의 정5품 관직이다. ‘持平’은 ‘공평을 유지하다’라는 뜻이다.

‘慶尙道按察使’는 경상도 담당 안찰사이다. ‘按察使’는 고려 시대 각 도(道)의 행정을 맡았던 으뜸 관직이다. ‘按察使’라는 명칭은 중국 당(唐)나라 때부터 사용되었다. ‘按察’은 ‘순찰(巡察)하다’라는 뜻이다.

‘中直大夫’는 조선 시대, 종3품 문관의 품계이다. ‘中直’은 ‘정직하다’는 뜻이다.

‘刑部郎中’은 형부(刑部)의 낭중(郎中)으로, 고려시대 육조(六曹)에 딸린 정5품 관직이다. ‘郎中’은 중국 전국(戰國) 시대부터 있었고 ‘궁문(宮門)·거기(車騎, 임금 수레) 등의 일을 관장한[掌管門戶車騎等事]’ 관직으로 청(淸)나라 말기에 폐하였다.

十二世 : 諱 居仁 諡號 恭節公(휘 거인 시호 공절공) 密直副使 慶尙道都觀察黜陟使 檢校左政丞(밀직부사 경상도도관찰출척사 검교좌정승) 淸川伯(淸천백)

‘密直副使’는 고려시대 밀직사(密直司)의 관직으로, 1275년(충렬왕 1) 추밀부사(樞密副使)를 고친 이름인데, 처음에는 종2품의 부사(副使)를 두었다가 1311년(충선왕 3)에 부사의 품계를 정3품으로 낮추어 고려 말까지 이어졌다. ‘密直’은 ‘기밀(機密) 숙직(宿直)’이라는 뜻이다.

‘慶尙道都觀察黜陟使’는 경상도 담당 도관찰출척사이다. ‘都觀察黜陟使’는 ‘모두 살펴 강등·승진시키는 사신’이라는 뜻으로, 고려 말과 조선 초 각 도(道)의 외관직(外官職)이다. 1388년(창왕 즉위년)에 안찰사(按察使)의 품질(品秩)을 높여 도관찰출척사로 이름을 고쳤고, 1466년(세조 12) 1월 관제를 개혁할 때 관찰사(觀察使)로 이름을 바꾸었다.

‘檢校左政丞’은 고려시대 도첨의부(都僉議府)에 속한 관직으로, 1275년(충렬왕 1)에 원(元)나라의 영향 아래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이 상서성(尙書省)을 병합하여 첨의부(僉議府)로 개편하고 장관으로 좌우(左右)의 첨의중찬(僉議中贊) 각 1인을 두었으며, 뒤이어 이를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고쳤고, 충선왕(忠宣王)이 개혁정치를 하면서 첨의중찬을 도첨의시중(都僉議侍中)으로 고쳤다가 다시 중찬(中贊)으로 고치고, 1308년에 충선왕이 재즉위하면서 중찬을 정승(政丞)으로 고쳐 1인으로 하였다가 충혜왕(忠惠王) 때 이를 우정승(右政丞)과 좌정승(左政丞)으로 개편하고, 1362년에 첨의우정승

(僉議右政丞)과 첨의좌정승으로 고쳤고, 1369년에 도첨의부를 문하부(門下府)로 고치면서 이를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과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으로 고쳤다. ‘檢校’는 훈관(勳官)이다.

‘淸川伯’은 백(伯)이라는 작호(爵號)로, 청주(淸州)의 ‘淸’을 사용한 것이다.

공절공은 전(前) 판개성(判開城, 개성부판사)의 직함으로 조선(朝鮮)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되었다.

十二世 : 諱 居義(휘 거의) 正憲大夫 工曹典書(정헌대부 공조전서)

‘正憲大夫’는 조선시대 정2품 문관 품계이다. ‘正憲’은 ‘법을 바르게 하다’라는 뜻이다.

‘工曹典書’는 공조의 전서(典書)이다. ‘工曹’는 ‘산택(山澤)·공장(工匠)·영조(營造)의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중앙 관아인 육조(六曹)의 하나이다. 고려 초에는 공관(工官)이라 칭하다가 뒤에 상서공부(尙書工部)라 고쳤으며, 또 다시 공조(工曹)라 칭하였다. ‘典書’는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의 정3품 관직으로, 충선왕(忠宣王)이 상서(尙書)를 전서로 바꾸고, 공민왕(恭愍王)이 전서를 판서(判書)로 바꾸고, 조선은 고려시대의 관제를 그대로 계승해서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형조(刑曹)·공조(工曹)의 육조(六曹)를 설치하고, 이 육조의 장관을 전서라 하였으나 품계가 정3품이어서 직위가 낮기 때문에 1405년(태종 5) 관제를 개혁하면서 육조의 전서를 판서로 고치고, 정2품으로 승격시켜 의정부(議政府)에서 관장하던 실권을 맡게 하면서 전서는 이후 다시 쓰이지 않았다. ‘典書’는 당(唐)나라 때 홍문관(弘文館)·비서성(秘書省) 등에 두어 도서(圖書)를 담당하게 하였던 관직이다.

十二世 : 諱 居易 諡號 文度公(휘 거의 시호 문도공) 管軍萬戶(관군만호) 右散騎常侍(우산기상시) 平安道兵馬節制使(평안도병마절제사) 參知門下府事(참지문하부사) 參贊門下府事(참찬문하부사) 判漢城府事(판한성부사) 條例詳定都監判事(조례상정도감판사) 門下侍郎贊成事(문하시랑찬성사) 判門下府事(판문하부사) 判尙瑞司事(판상서사사) 門下左政丞(문하좌정승) 領議政府事(영의정부사) 領司平府事(영사평부사) 領議政(영의정) 西原府院君(서원부원군) 定社功臣(정사공신) 佐命功臣(좌명공신)

‘管軍萬戶’는 조선 초기 절제사(節制使) 관할 아래에 있는 지방 군사 행정 단위인 제진(諸鎭)을 지휘하던 만호(萬戶)이다. ‘管軍’은 ‘군사를 관장(管掌)하다’라는 뜻이다. ‘萬戶’는 고려·조선 시대 외침 방어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호부(萬戶府)의 관직으로, 본래 그가 통솔하여 다스리는 민호(民戶)의 수에 따라 만호(萬戶)·천호(千戶)·백호(百戶) 등으로 불리다가 차차 민호의 수와 관계없이 진장(鎭將)의 품계와 직책 등으로 변하였다.

‘右散騎常侍’는 고려·조선 초기의 관직으로, 고려시대에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두어서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와 함께 낭사(郎舍,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에 소속된 정3품 이하 관원의 총칭)를 구성하는 관직 가운데 최고직이었다. 중국 진(秦)나라 때

산기(散騎) 관직과 중상시(中常侍)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위(魏)나라 때 ‘散騎常侍’로 합하여 하나의 관직이 되고, 당(唐)나라 때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로 나누어 두었다. ‘散騎’는 ‘임금을 따르는 기사(騎士)’라는 뜻이고, ‘中常侍’는 ‘궁중에서 늘 모시다’라는 뜻이다.

‘平安道兵馬節制使’는 평안도 담당 병마절제사이다. ‘兵馬節制使’는 조선시대 정3품 수령이 겸직한 서반(西班) 관직이다. ‘節制’는 ‘지휘(指揮)하다’라는 뜻이다.

‘參知門下府事’는 ‘參知事’ 속에 ‘門下府’가 들어간 관직으로, ‘문하부의 일을 참여하여 관장하다’라는 뜻인데, 고려 시대 문하부의 종2품 관직이다. ‘門下府’는 고려시대의 최고 행정관청으로, 1369년(공민왕 18)부터 1401년(태종 1)까지 존속하여 국정을 총괄하였다. 고려는 초기에 당(唐)나라의 관제(官制)를 모방하여 문하성(門下省)·중서성(中書省)·상서성(尙書省) 등을 두어 3성(省) 6부제(部制)를 채택하였으나, 통폐합·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말기에 문하부로 정착하였다. 관원으로는 영문하(領門下), 문하좌·우시중(門下左右侍中),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 문하사인(門下舍人), 좌·우사간(左右司諫), 문하녹사(門下錄事), 문하주서(門下注書) 등이 있었다. 문하부는 조선시대에 그대로 계승되어 한동안 존속하다가 1401년(태종 1) 7월 의정부(議政府)와 그 기능이 중복된다고 하여 철폐되었다.

‘參贊門下府事’는 ‘參贊事’ 속에 ‘門下府’가 들어간 관직으로, ‘문하부의 일을 참여하여 돕다’라는 뜻인데, 문하부의 정2품 관직이다. 조선 태종 원년(1401)에 문하부를 없애고 의정부(議政府)에 그 일을 맡기면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 바뀌었다.

‘判漢城府事’는 ‘判事’ 속에 ‘漢城府’가 들어간 한성부판사(漢城府判事)로 ‘한성부 일을 판결하다’라는 뜻인데, 조선 초기 한성부의 으뜸 벼슬로, 품계는 정2품이고, 세조(世祖) 12년(1466)에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고쳤다.

‘條例詳定都監判事’는 조선 정종 1년(1399)에 각종 조례(條例)를 제정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청인 ‘條例詳定都監’의 판사(判事)이다. ‘都監’은 ‘모두 감독하다’라는 뜻으로 중국 삼국(三國) 시대부터 관직으로 쓰였다.

‘門下侍郎贊成事’는 조선 초기 문하부(門下府)의 관직으로, 조선 태조(太祖) 원년(1392)에 두었다가, 태종(太宗) 원년(1401)에 문하부를 폐함에 따라 의정부(議政府)로 붙였다. ‘贊成事’는 ‘일을 도와 이루다’라는 뜻으로, 고려 후기 첨의부(僉議府, 都僉議使司)의 정2품 관직이었는데,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는 문하부의 종1품 관직으로 시랑찬성사(侍郎贊成事)와 찬성사가 1인씩 두어졌으며, 이후 1414년(태종 14)에 동판의정부사(同判議政府事)로 개칭되고 같은 해에 다시 좌참찬(左參贊)·우참찬(右參贊)으로 바뀌었다가 다음해에 좌참찬은 찬성(贊成)으로, 우참찬은 참찬(參贊)으로 개편되었다.

‘判門下府事’는 ‘判事’ 속에 ‘門下府’가 들어간 관직으로, ‘문하부의 일을 판결하다’라는 뜻인데, 고려 후기 문하부의 종1품 관직으로, 우왕(禡王) 때에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를 고쳐 부른 명칭이다.

‘判尙瑞司事’는 ‘判事’ 속에 ‘尙瑞司’가 들어간 관직으로, ‘상서사의 일을 판결하다’라는 뜻인데, 고려 후기 상서사의 장관 관직이다. 상서사는 제배(除拜, 인사이동)·부인(符印) 등을 관장하는 관청이었는데, 1466년(세조 12) 상서원(尙瑞院)으로 개칭되어 1894년(고종 31)까지 존속되었으나, 조선시대의 상서원은 인사의 기능을 상실한 이조의 속아문(屬衙門)으로 새보(璽寶, 도장)·부패(符牌, 부절과 패)·절월(節鉞, 장군에게 주는 부절과 도끼)을 담당하는 관청이다. ‘尙瑞’는 ‘상서로움을 높다’라는 뜻이다.

‘門下左政丞’은 조선 초기 문하부(門下府)의 정1품 관직으로, 태조(太祖) 3년(1394)에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을 고친 이름이다.

‘領議政府事’는 ‘領事’ 속에 ‘議政府’가 들어간 관직으로, ‘의정부의 일을 다스리다’라는 뜻인데, 의정부영사(議政府領事)이며, 조선 초기 의정부의 으뜸 관직으로, 품계는 정1품이고, 태종(太宗) 14년(1414)에 처음으로 두었으며, 세조(世祖) 12년(1466)에 영의정(領議政)으로 고쳤다. ‘議政府’는 ‘정무를 논의하는 관부(官府)’라는 뜻이다.

‘領司平府事’는 역시 ‘領事’ 속에 ‘司平府’가 들어간 사평부영사(司平府領事)로 ‘사평부의 일을 다스리다’라는 뜻인데, 조선 초기 사평부(司平府)의 으뜸 관직이며, 품계는 정1품이다. ‘司平府’는 조선 태종(太宗) 원년(1401)에 삼사(三司)를 고친 명칭으로, 전곡(錢穀)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는데, 태종 5년(1405)에 철폐되어 호조(戶曹)에 합쳤다. ‘司平’은 ‘공평함을 맡다’라는 뜻인데, 중국 당(唐)나라 때 공부(工部) 관청을 사평으로 바꾸어 불렀다.

‘西原府院君’의 부원군(府院君)은 공신(功臣)에게 내린 작호(爵號)인데, 종친(宗親)·부마(駙馬, 임금 사위)에게도 내렸고, 뒤에는 왕비(王妃)의 친부(親父)에게 내렸다. ‘西原’은 문간공(文簡公)의 ‘서원백(西原伯)’에 쓰인 바가 있다.

‘定社功臣’은 조선 초기 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신들에게 내린 훈호(勳號)이다. 1398년(태조 7) 방석(芳碩)의 난 때 정도전(鄭道傳)·남은(南鬮)·심효생(沈孝生)·장지화(張至和)·이근(李勲) 등을 죽이고 난을 평정해서 사직을 바로잡았던 신하들에게 내린 공신 호칭인데, 문도공은 참찬문하(參贊門下)의 직함으로 1등공신에 녹훈되었다. ‘定社’는 ‘사직(社稷)을 안정시키다’라는 뜻이다.

‘佐命功臣’은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이다. 1400년(정종 2) 방간(芳幹, 방원의 동복형)과 그를 추종하던 박포(朴苞)가 이방원(李芳遠, 뒤의 태종)의 위세를 시기하여 그를 제거하려고 난을 일으켰는데, 이에 이방원이 난을 평정하고 왕위에 오른 다음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내린 공신 호칭인데, 문도공은 문하좌정승(門下左政丞)의 직함으로 1등공신에 녹훈되었다. ‘佐命’은 천명(天命)을 도왔다는 뜻이다.

문도공은 전서(典書)의 직함으로 조선(朝鮮)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되었다. 그리하여 문도공은 개국공신(開國功臣)·정사공신(定社功臣)·좌명공신(佐命功臣)의 세 가지 공신에 녹훈된 것이다. 원종공신은 정공신(正功臣, 친공신(親功臣)이라고도 함)의 자제나 측근으로서 작은 일에 공훈을 세운 공신이지만, 공신은 정공신으로 본인 자신이 공을 세운 공신으로 부원군(府院君)이라고 호칭하였다.

○十三世 : 諱 德潤(휘 덕윤) 忠佐衛護軍(충좌위호군)

‘忠佐衛護軍’은 충좌위 군대의 호군 관직이다. ‘忠佐衛’는 조선 시대 군대 편제인 오위(五衛)의 하나로, 전위(前衛, 앞서서 먼저 나가는 호위) 부대이며 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파적위(破敵衛) 등이 이에 속하였다. ‘護軍’은 조선시대 오위의 정4품 무관 관직이다. ‘忠佐衛’는 ‘충성으로 보좌하는 위(衛)’라는 뜻으로, ‘衛’는 원래 ‘숙위(宿衛)’라는 뜻으로부터 명(明)나라 때에 ‘군영(軍營)’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護軍’은 ‘군사를 총령(總領)하다’라는 뜻으로, 중국 진(秦)나라 때부터 있었다.

十三世 : 諱 富潤(휘 부윤) 特進(특진) 中直殿中(중직전중) 通訓大夫(통훈대부) 知沔州事(지면주주사)

‘特進’은 고려시대 문관의 위계(位階) 제도로, 1076년(문종 30) 정2품으로 정하여져서 전체 29등급 중 제2계였다. ‘特進’은 ‘조정에서 존경을 특이하게 할 사람[朝廷所敬異者]’이라는 뜻으로, 중국 한(漢)나라 때부터 있었다.

‘中直殿中’은 전중경(殿中卿)을 말한 듯하다. 전중경은 조선 초기 왕실 친속(親屬)의 보첩(譜牒)과 전내(殿內)의 급사(給事) 일을 맡아본 전중시(殿中寺)의 경(卿)이다.

‘通訓大夫’는 조선 시대 문관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품계이다. 당하관은 조의(朝議)를 행할 때 당상(堂上)의 교의(交椅)에 앉을 수 없는 관원으로, 동반(東班)은 정3품(正三品)의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 서반(西班)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 종친(宗親)은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 의빈(儀賓)은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품계를 가진 관원이다. ‘通訓’은 ‘정무를 훈계(訓誡)하다’로 이해된다.

‘知沔州事’는 면주지사(沔州知事)로, ‘면주의 일을 맡아보다’라는 뜻이며, 충청도 면주 지역을 다스리는 관직이다.

十三世 : 諱 寬道(휘 관도) 司憲府持平(사헌부지평)

‘司憲府持平’은 사헌부(司憲府) 소속의 정5품 관직이다.

十三世 : 諱 完道(휘 완도) 司正(사정)

‘司正’은 오위(五衛)에 소속된 정7품 무관 관직이다. ‘司正’은 ‘바름을 맡다’라는 뜻이다.

十三世 : 諱 宏道(휘 광도) 司水監丞(사수감승)

‘司水監’은 전함(戰艦)의 수리와 운수에 관한 일을 맡던 관청이다. 승(丞)은 종5품 관직이다. ‘司水’는 ‘물을 맡다’라는 뜻인데, 중국 당(唐)나라 때 공부(工部)의 수부(水部)를 바꾸어 ‘司水’라고 한 적이 있다.

十三世 : 諱 崑崙(휘 곤륜) 通訓大夫(통훈대부) 知泰州事(지태주사) 司憲府監察(사헌부감찰)

‘通訓大夫’는 정3품 당하관(堂下官) 품계이다.

‘知泰州事’는 태주지사(泰州知事)로 ‘태주의 일을 맡아보다’라는 뜻이며, 평안도 태주 지역을 다스리는 관직이다. ‘泰州’는 평안북도 태천(泰川)의 옛 지명이다.

‘司憲府監察’은 사헌부에 속한 관원으로, 종6품 관직이다. ‘監察’은 ‘살펴보다’라는 뜻이다.

十三世 : 諱 夔 諡號 景肅公(휘 애 시호 경숙공) 崇政大夫(승정대부) 議政府贊成事(의정부찬성사) 判戶曹事(판호조사) 判左軍都摠制府事(판좌군도총제부사) 判義勇巡禁司事(판의용순금사사) 上黨府院君(상당부원군) 定社功臣(정사공신) 佐命功臣(좌명공신) 景숙공은 초명(初名)이 백경(伯卿)이고, 뒤에 저(佇)로 바꾸었다가 또 애(夔)로 바꾸었다. 이태조(李太祖)의 딸 경신공주(慶愼公主)와 혼인하였다.

‘崇政大夫’는 종1품의 문관 품계 명칭이다. ‘崇政’은 ‘정무를 존중하다’라는 뜻이다.

‘議政府贊成事’는 의정부의 소속 관원이다. ‘贊成事’는 뒤에 찬성(贊成)과 참찬(參贊)으로 개편되었다.

‘判戶曹事’는 호조판사(戶曹判事)이며, 고려 시대 상서호부(尙書戶部)의 책임자로 종1품 관직이다. ‘戶曹’는 중국 한(漢)나라 때부터 있었는데, ‘민호(民戶)·제사(祭祀)·농상(農桑)’을 담당하는 관청’이었다.

‘判左軍都摠制府事’는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의 좌군도총제부(左軍都摠制府)의 판사(判事)이며, 중군(中軍)·좌군(左軍)·우군(右軍)의 3군(軍)의 편제에 각군(各軍)도 총제(都摠制)인데, 그 아래에 총제(摠制)·동지총제(同知摠制)가 있었다. ‘都摠制’는 ‘제도(制度)를 모두 모으다’라는 뜻이다. 총(摠)은 총(總)과 통용하는데, 총제(總制)는 총독(總督)의 다른 호칭으로, 중국 명(明)나라 때 관직으로 쓰였다.

‘判義勇巡禁司事’는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의 판사(判事)이다. ‘義勇巡禁司’는 감옥을 다스리던 관청으로, 뒤에 의금부(義禁府)로 바뀌었다. ‘義勇’은 ‘의기(義氣)와 용맹(勇猛)’이라는 뜻이고, ‘巡禁’은 ‘순찰하여 금지시키다’라는 뜻이다.

‘上黨府院君’은 친공신(親功臣)의 작호(爵號)로, ‘上黨君’으로 약칭하기도 하는데, ‘上黨’은 청주(淸州)의 옛 이름이다.

景숙공은 정사공신(定社功臣)의 1등 공신이고, 좌명공신(佐命功臣)에도 1등 공신이다. 정사공신에 녹훈될 때에는 상당후(上黨侯) 직함이었는데 종실(宗室)은 공작(公爵)이고, 사위는 후작(侯爵)이었다. 그리고 좌명공신에 녹훈될 때에는 상당군(上黨君) 직함이였다. 그리하여 문도공(文度公)과 경숙공 두 분 부자(父子)는 정사공신·좌명공신에 모두 1등 공신으로 녹훈된 것이다. 그리고 경숙공의 아우 정절공(이백강)도 좌명공신에 녹훈되어 3부자가 공신이 된 것이다.

十三世 : 諱 伯寬(휘 백관) 僉知中樞府事(침지중추부사)

‘僉知中樞府事’는 중추부침지사(中樞府僉知事)이다. ‘中樞府’는 특정한 관장 사항이

없이 문무의 당상관(堂上官)으로서 소임이 없는 자들을 소속시켜 대우하던 기관이다. '兪知事'는 '일을 모두 주관하다'라는 뜻으로, 생략하여 '兪知'라고도 하는데, 정3품 관직이다. '申樞'는 '사물의 중심이 곳'이라는 뜻으로, 군사·기밀 등의 관청에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十三世 : 諱 伯臣(휘 백신) 資憲大夫(자헌대부) 吏曹判書(이조판서) 行蔚山郡事(행울산군사) 겸권농사(兼勸農使)

'資憲大夫'는 문관의 정2품 품계이다. '資憲'은 '법에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보인다.

'吏曹判書'는 이조의 판서로, 이조의 장관(長官)이다.

'行蔚山郡事'는 갑자보(甲子譜, 1864년에 만든 족보)에는 '지울산군사(知蔚山郡事,蔚山郡知事, 울산군 일을 맡아보는 관원)'로 되어 있다.

'兼勸農使'는 겸직 권농사로, 권농사는 농경을 권장하고 관개(灌溉, 농지에 물대기)업무를 관장하는 관직이다.

十三世 : 諱 伯剛 諡號 靖節公(휘 백강 시호 정절공) 大匡輔國崇祿大夫(대광보국승록대부) 淸平府院君(청평부원군) 佐命功臣(좌명공신) 綏祿大夫(수록대부) 淸平尉(청평위)

정절공은 이태종(李太宗)의 딸 정순공주(貞順公主)와 혼인하였다.

'大匡輔國崇祿大夫'는 문관의 정1품 품계이다. '輔國'은 '국가를 돕다'라는 뜻이다. '崇祿'은 '녹위(祿位, 녹봉과 작위)가 높다'라는 뜻이다.

'淸平府院君'은 공신(功臣)의 작호(爵號)로, '淸平君'으로 약칭하기도 하는데, 청주(淸州)의 청(淸)을 따서 만든 호칭이다.

'綏祿大夫'는 의빈(儀賓) 정1품 품계이다. '綏祿'은 '녹위(祿位)에 편안하다'라는 뜻이다.

'淸平尉'의 '尉'는 임금의 사위에게 주는 호칭이다.

정절공은 귀장(几杖, 임금이 국가에 공이 많은 늙은 신하에게 주는 안석과 지팡이)을 하사받았다.

十三世 : 諱 伯儂(휘 백현) 通政大夫(통정대부) 兪知中樞府事(첨지중추부사)
(끝)